

## 법제처, 정부세종청사에서 무궁화 심기 행사 가져

제71회 식목일 기념, 나라꽃 500여본 심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71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4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 이번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자연과 조화되는 정부세종청사를 조성하고, 무궁화 심기를 통한 나라사랑 실천 차원에서 법제처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개최됐다.
  - 제정부 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은 무궁화 500여본을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심으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훼손·방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다”



- 제정부 처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나라꽃인 무궁화를 청사에 심게 되어 그 상징성이 크다”면서,
  -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훼손·방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

공공서비스분야 3년 연속 “대상” 수상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에 대하여 4월 1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공공서비스분야)을 수상했다.
- 국가법령정보 앱은 하나의 스마트 공간(onestop)에서 움직이면서도(mobile), 언제든지(anytime)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 공공분야 앱이다.
  - 특히, 2010년부터 법령, 판례 등 약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330만 건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2016년까지 약 35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3월 1일부터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해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앱에서도 연동시키는 등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 제정부 처장은 국가법령정보 앱의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축 하하며,

– “앞으로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들이 국가법령정보 앱을 활용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그 정보를 활용해 규제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3월 1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규 국가법령 정보 앱’은 종전의 국가법령정보 앱과 6월 30일까지 병행 운영 중에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만 활성화될 예정이다.

–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를 검색한 후,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들이 국가법령정보 앱을 활용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그 정보를 활용해 규제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입법참여 더 쉽고 빨라진다”

##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 정식 개통

전 부처 입법예고 상황 한 눈에 조회

국민의 의견제출도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으로 완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 21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정식 개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 제정부 처장은 “통합입법예고센터는 국민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2016년 법제처의 핵심 과제”라면서,
  - “통합입법예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아울러 통합입법예고센터는 법제처의 2016년도 정부 3.0 핵심사업으로서, 작년 10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한 아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해 왔다.
  -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 과정에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높이고,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입법예고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한 접근이 수월

● 종전의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는 부처별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가령, 2개 이상 부처의 법령이 함께 얹혀 있는 시안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복수의 부처를 각각 검색한 후, 그 부처별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공고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비로소 모든 입법예고 법령안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모든 부처에서 실시하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제정 또는 개정 법령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누구나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입법예고”만 검색하면,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연결되고, 관심있는 모든 입법예고 법령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이 4월 21일 시행되어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입법예고 방식이 의무화됨

2

###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 제공

● 종전의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는 관보의 한정된 지면(紙面)으로 인해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 즉, 종전에는 관보에 법령안 주요 내용, 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만을 공고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어떤 배경으로 관련 법령안이 제·개정 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종전에 제공되던 입법 정보 외에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조문대비표(신·구조문대비표)를 비롯해,

– 제·개정이유서 등의 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3

### 국민의 입법참여 방법이 편리

● 종전에는 입법예고 법령안에 대해 국민들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실제로 국민들은 관보나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우편 발송, 팩스 발송 또는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었다.

●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는 온라인을 통해 댓글 형식으로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 언제, 어디서나 법령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보완 의견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견제출 시 답변을 통지받을 이메일 주소 등 등록 필요

4

### 제출된 의견의 법령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어

● 종전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된 의견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그 의견이 개정 법령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바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전달되고, 담당 공무원은 그 의견별로 법령에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결정하여,

–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이메일을 통해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자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Ddm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및 접근



법제처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

##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태국의 IT산업 법제 등 관심 법제 분야 공유

태국 등 아세안 소속 국가와의 경제협력 디딤돌 놓아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 27일 오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 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13년에 교환한 교류협력의향서에 근거해, 법제처와 교류를 지속해 온 태국 내각사무처가 더욱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 후 '법제 IT인프라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양국 가 간 법제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 아울러, 태국 대표단은 한국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체계적인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유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국민·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 태국의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 등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디스տHotrakitya(Distat HOTRAKITYA) 태국 내각사무처장은 "한국 경제성장의 근간에는 체계적인 법제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 "최근 태국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IT산업 등의 진흥을 위해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에 제정부 처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 의장국을 맡고 있는 라오스 등 6개국\* 법제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함으로써, 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최신 법령의 교류, 공동 연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전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 한류(法制韓流)'를 아세안 지역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법제 분야에서 한·아세안 동반 성장을 보다 공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법무처('11.6.), 캄보디아 법무부('11.11.), 미얀마 법무부('11.11.), 베트남 법무부('12.6.), 캄보디아 내각사무처('15.11.), 라오스 법무부('16.3.)